Ferdinando Frega – Nando the Scribe

TWO LIVES. ONE STORY.



Gillettenarrative.com

두 개의 삶. 하나의 GILLETTE 이야기.

GILLETTE AUDIO — NANDO THE SCRIBE — GILLETTENARRATIVE.COM

나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: 사회 계약을 하루 더 갱신해 주고, 내가 생각하는 바를 계속 말할 수 있게 해 준 운명에 감사하는 것이다 — 아내도, 더 나쁘게는 딸도 근처에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.

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다. 그다음 사이트를 잠깐 들여다본다, 둘러보러 들어온 독자들을. 그러고 나면 눈길은 웹으로 옮겨 간다 — 웹의 세 여인이 오늘 gillettenarrative.com을 어떻게 대하기로 했는지 보려고.

간단한 일처럼 보인다. 그렇지 않다.

공격이나 분쟁 때문이 아니다 — 그런 것은 여전히 집안의 특권으로 남아 있다. 어떻게 해석되는가 때문이다.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때문이다.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.

우리는 즉시 분명히 해야 했다. 우리는 P&G — 어머니 Gillette를 포함해 많은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 — 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, 세제나 표백제를 팔지 않는다고.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. 우리는 오직 The Gillette Company 안에서 보낸 40년 더하기 18년의 이야기를, 안에서부터, 그것을 살아 낸 사람들이 쓰고 들려주기 위해 여기 있을 뿐이다.

그리고 그렇다 — 당신의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: 그렇다면 P&G가 받는 공짜 광고는? 브랜드 노출, 분기별 인지도, 주가 최적화는?

내가 그들의 숫자를 움직였다면 기쁠 것이다. 그것 역시 공짜다.

코끼리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— 힘세고, 거대하고,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코끼리가 발에 가시가 박혔다. 아무도 그를 도울 용기가 없었다. 생쥐만 빼고.

나는 누구인가?

그냥 Nando다.

생쥐.

Ferdinando